

강원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제도 운영 방안 사례

이성호 *, 박노국 *

1. 서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기업에 따라서는 세계 일류수준에 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선진국 산업기술 수준의 43%, 국내 대기업의 64%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술수명 주기로 볼 때 포화기 혹은 쇠퇴기에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7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체적인 기술규모 및 기술 개발력은 미국의 1/10~1/20 수준, 일본과 독일의 1/5~1/10 수준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과 비교해 볼 때 선진국과 우리나라 전체의 차이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강원도의 제조업 현황은 수치상으로 볼 때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전국적인 자료와 비교해 보면 전국 중소기업이 2,600,000개인 반면에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000여개로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로만 한정하면 278,000여개 중 6,300개로 2.3%에 불과하다.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중소기업들은 그 지역에 맞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우수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 중소기업을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지자체-산업체가 연계한 컨소시엄 공동기술개발 사업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강원지역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고급 기술력에 바탕 한 기술집약적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안에 의한 자금사정의 악화, 기업의 투자여력 감소, 서비스 산업의 비대화로 인한 제조업 위축과 투자 기피, 기술혁신의 미비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 산학연 참여기관의 역할

2.1 중소기업청 역할

중소기업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앞으로 세계 일류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있어서 절대우위의 기술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컨소시엄 참여대학 및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 내 산·학 협동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기술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체에 대한 시책의 우대지원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 산업기능요원 배정확대, 기술혁신 개발자금 지원확대, 기술지원 확대에 현장 애로기술 조기 해소, 기술개발 사업화(중소기업구조 개선사업) 자금 확대가 요청되어 진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로써 기술력과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중소기업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컨소시엄사업에 대해 참여기회를 갖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과 인근기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 상지대학교

또한 컨소시엄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는 지역 내 기업의 유치 및 우량기업으로의 육성과 함께 기업 기술력의 확보 및 공동 애로기술의 해소가 필수적이므로, 지역 내 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컨소시엄 예산의 지원확대를 통하여 컨소시엄 참여대학 및 업체를 증장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컨소시엄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 관리 및 행정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지역 내 컨소시엄의 공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지역중소기업간 대화의 장 마련, 컨소시엄 우수 성과물에 대한 홍보 및 전시공간 마련 등 컨소시엄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2.3 지역대학의 역할

지역대학의 역할로써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들의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 잠재력 확충을 통하여 기술력 저변확대, 시설장비 개방 등, 지역의 산업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학교 스스로가 기술자(전문가) 자문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된다.

특히 강원지역의 일부 시군에서는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보다 관광산업을 우선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차원에서 중소기업 창업은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 시도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활동이 대학교의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사업을 통하여 현 시점에서 더욱 크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주관대학은 실질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의지에 따라 컨소시엄의 활성화 여부가 좌우되므로 과제선정에서부터 제품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교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교수가 연구개발한 아이템을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이전 제도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진단하는 경영진단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이 요구되며, 기술개발과 산업력 창출 및 지역발전과 더불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분야별 우수전문가 확보와 전문 연구소 체제의 재정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체계의 구심점으로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

3. 강원지역 컨소시엄 주체별 제안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컨소시엄 사업 참여기업들의 자체평가를 위한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1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의 제안

- ① 행정적인 절차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연구기간이 짧다.
- ② 교수들의 연구결과가 이론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용성 측면을 보장하여 기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술혁신 과제와 연계시켜 줌으로서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④ 업체의 부담금을 당해연도에 완납하는 것보다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⑤ 정부차원 또는 자치단체 차원의 연구개발 영역의 확대, 예산 지원이 대폭 인상되었으면 한다.
- ⑥ 단기적 연구사업 시행과 함께 3~5년의 장기적 연구사업의 시행도 고려되어야 한다.

4.2 컨소시엄 참여대학의 제안

- ① 과제 결정과 자금 지원이 늦어져 연구기간이 실질적으로 짧고, 결과도 늦어지게 된다.

- ② 내부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결과의 상품화, 지적재산권의 특허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 ③ 정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인상되어야 한다.
- ④ 내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부연구과제에 대한 균등한 자금 배정을 피하여야 한다.
- ⑤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의 전문화시키기 위해 4대 보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⑥ 단기과제와 병행하여 2~3년의 중장기적 연구사업의 시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4. 강원지역 산학연 컨소시엄의 발전방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중소기업과 대학의 협동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이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중소기업이 대학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이 자유롭게활용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관대학은 지역적으로 중소기업과 밀착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중소도시까지 산재해 있는 지역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컨소시엄 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기획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가 필수적이며, 아울러 기술의 연구개발 등 특정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경영요소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2개 기업과 1개 대학, 1개 기업과 2개 대학 등 다자간 산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다 많은 대학과 기업이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참여기업의 연구개발의지와 개발된 성과물의 활용능력 등 경영자의 경영능력배양이 필요하며, 지방대학이 정비된 연구개발 체제를 통하여 지역 기술개발이 구심점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지역의 발전 없이 대학의 발전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필요하다.

산학연 컨소시엄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컨소시엄의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컨소시엄 사업 운영의 내실화 :

대학원 전담인력지원으로 관련 행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며, 타 지역 컨소시엄의 과제와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② 행정 절차의 개선 :

과제 선정과 자금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실제적인 연구기간에 길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연구수행능력을 제고 :

대학의 연구 인력과 확보율을 높임으로서, 연구 수행능력을 높인다.

④ 참여기업과 대학의 협의체 구성 :

상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며, 대학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장기적 연구사업의 검토 :

단기적 연구사업 시행과 함께 3~5년의 장기적 연구사업의 시행도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검토한다. 즉,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

여는 점차 정부보조비율을 높여가는 방안을 강구한다.

⑥ 연구비 정부 지원의 인상 :

정부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대폭 인상되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⑦ 업체부담금의 분할 납부 :

업체의 부담금을 당해연도에 완납하는 것보다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컨소시엄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참여주체간의 끊임없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의 결과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많은 연구결과 가운데 아주적은 부분이 상품화되고 산업화되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참여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금을 마련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 지원하는 것인 만큼, 보다 큰 사명감과 적극성을 갖고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주체인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산학협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시책에 대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인지도, 활용도 및 지원효과를 파악하고 실용화를 위한 산·학 협력방안, 실용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술개발 정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 강원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의 기술지원 업체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회수현황 :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수는 181개

조사기간 및 방법 : 2003. 11월 ~ 12월, E-mail 또는 방문 조사

조사기관 : 강원지방 중소기업청

주요 조사내용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시책의 인지도, 활용도, 효과정도
- 기술개발에 대한 정보, 시장조사, 기술개발인력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현황 및 여건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정도
- 실용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및 실용화 현황
- 강원지역의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애로요인 등

조사항목

- 설문지는 총 6개 부문 34개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기술지원제도의 인지도, 사업참여 경험유무, 참여동기 등을 조사
- 기업의 R&D 투자비용 및 매출액 변화 추이 등

<표-1> 설문지의 구성

구 분	내 용	설문항목수
기술개발지원 일반사항	인지도, 효과정도	6
기술개발현황	인력, 정보, 개발후 수요처 등	6
산학연 협력	산학연협력 유무, 이용정도	6
실용화 과정 정부의 역할	실용화시 정부지원 분야	5
실용화 현황	실용화 건수, 개발기간 등	6
지원제도 개선 관련	기술수준, 우선지원분야 등	5

II. 응답업체 개요

총 181개 설문응답업체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 조사업체의 설립 년도는 창업 3년 경과된 업체(61개)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5년이내 창

- 업한 기업의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70%를 차지하였음
- 상시 평균 종업원 수 18.2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자본금은 510백만원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38개(21.0%), 바이오 37개(20.4%), S/W 30개(16.6%), 화학 27개(14.9%), 전기·전자 21개(11.6%)를 각각 차지하였음
- 2002년 평균 매출액은 2001년 대비 338백만원이 증가
 - 2001년도 평균 매출액 2,546백만원이며 2002년도 평균 매출액은 2,81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수출기업은 2001년 2002년 18업체로 동일하였음 평균 수출액은 2001년 3,294백만원에서 2002년 3,531백만원으로 소폭 상승함
- 2002년 평균 연구개발 지출비용은 110백만원
 -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체수는 2001년도 53업체에서 2002년 64업체로, 평균 투자금액은 2001년 77백만원에서 2002년 110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III. 조사결과 요약

- ◇ 최근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R&D 투자업체수 및 투자규모가 꾸준히 증가 추세
-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일부 사업은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해당사업에 대한 홍보대책 마련이 필요
- ◇ 자체 기술개발시 가장애로 요인은 자금 105개(51.8%), 인력 45개(24.8%), 연구장비 19개(10.4%), 시험분석 8개(4.4%)순으로 나타남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4개월로 조사됨
- ◇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에서 우선 지원되어야 할 분야는 자금이 123개(68.0%)로 나타나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함
- ◇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평균 기술수준은 수도권 중소기업의 76.2%, 대기업의 64.2%, 선진국의 58.3% 수준이라고 응답함
- ◇ 최근 3년 이내에 1건이상 기술개발을 수행한 업체는 135업체로서 응답업체의 90.7%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기술개발 건수는 0.75건으로 나타남
- 산학연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지도사업, 기술혁신대전 등 인지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자금지원확대가 97개로 54%를 차지함
 - 또한 중소기업청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홍보부족과 지원(신청)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큰 이유로 선정
 - 한편, 중소기업청에서 처음 시행한 기술개발자금 신용카드제는 확대 또는 개선하여 계속 시행을 희망하는 기업이 101개(55.8%)로 조사됨
- 기술개발 아이디어는 소비자(거래처) 요구에 의존
 - 연구개발과 관련된 아이디어 및 정보수집 원천은 많은 기업(95개, 52.5%)이 소비자 또는 외부정보매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개발전 기술축적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4개(7.7%)업체에 불과하며, 자금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개발에 착수한 기업은 13개(7.2%)업체로 조사됨
 - 대다수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술개발을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개발에 참여한 인력은 평균 2.9명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
 - 기술개발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84개(4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실용화를 위하여 産·學 협력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반면, 企業間 협동개발은 극히 저조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산학연과 협력하는 기업이 가장 많고(99개, 54.7%), 독자

- 적으로 개발한다고 응답한 업체도 32개(17.7%)에 달함
- 그러나 기업간 협력 및 외부위탁, 기술도입에 의한 개발은 매우 낮게 나타나 개선 대책이 필요
 - 산학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대학(128개, 70.7%), 관련분야 전문가(27개, 14.9%), 없다(18개, 9.9%), 연구기관(8개, 4.4%)순으로 나타남
- 개발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장비 투자 미흡
 - 개발제품의 기술력에 대한 수요업체의 신뢰도는 우수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154개(85.1%)로 높게 나타났으나
 - 신뢰성 확보방안으로는 정보교류나 인간적 관계 유지가 가장 높으며, 과학적인 신뢰성확보 방안은 낮음
- 상업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생산설비 확보를 위한 재원부족과 수입품 등 가격공세
 - 상업화에 실패한 경우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자금 확보 곤란으로 포기한 경우가 51.9%로 가장 높고, 수입품이나 경쟁제품의 가격공세가 27.6%를 차지함
 - 또한 실용화 과정에서 “금융지원” 시급성을 묻는 질문에 시급성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기업이 46.4%로 가장 많아 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서 자금 애로가 큰 것으로 분석됨
- 개발과제의 성공율은 61.2%로 비교적 높은 편임
 - 최근 3년 이내 개발에 착수한 과제수는 평균 2.70과제 이며 이중 개발에 성공한 과제는 2.16과제로 조사됨
 - 개발완료 후 상용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3.1개월로 조사됨
- 기술수준은 동종업종의 수도권 중소기업 대비 76%수준
 - 기술력은 동종업종의 수도권 중소기업과 비교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64% 수준이라고 응답
 - 평균 기술개발 소요기간은 14.1개월로 비교적 상업화가 빠른 기술개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IV.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업체 및 기술지원시책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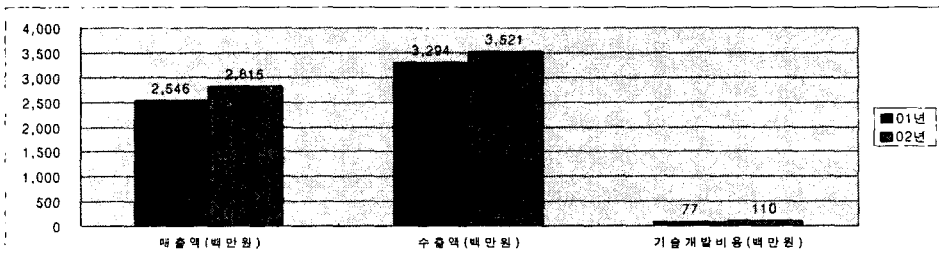
응답업체 일반사항

- 조사기업의 평균종업원은 18.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기술개발 참여인력은 2.9명으로 나타남
- '01년 대비 매출액, 수출액, 연구개발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2> 참여업체 일반현황

종업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기술개발비용 (백만원)	
		'01년	'02년	'01년	'02년	'01년	'02년
18.9	595	2,546	2,815	3,294	3,531	77	110

<그림-1> 매출액, 수출액, 기술개발비용 증가



- 응답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기계·금속 21.0%, 바이오 20.4%, S/W 16.6%, 화학 14.9%, 전기·전자 11.6%,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시책의 인지도·효과정도
 - ① 기술개발자금 지원분야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6개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산학연컨소시업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산학연사업은 응답업체의 64.6%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1993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프라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표-3> 기술개발지원 사업별 평가

사업명	인지정도		활용효과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	40.9	2	25.4
산학연 컨소시엄개발사업	1	64.6	1	40.3
이전기술 개발사업	3	17.7	3	11.0
협동기술 전략개발사업	4	9.4	4	5.0
공정혁신 개발사업	5	7.7	4	5.0
직무기피요인 제거개발	6	3.9	6	6.6

* 비율은 응답업체중 “잘안다” “아주높음” 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임

- ② 기술지도 분야
 - 기술지도분야에서는 기술지도사업이 인지도, 활용효과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싱글 PPM지원이 상대적으로 인지도, 활용도가 낮음

<표 - 4> 기술지도 사업별 평가

사업명	인지정도		활용효과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	1	48.1	1	23.8
컨설팅지원	2	23.8	2	12.2
싱글PPM 지원	4	5.5	4	5.5
기술인력양성교육	3	13.8	3	10.5

- ③ 사업화지원 및 마케팅지원 분야
 - 사업화지원분야에서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이 인지도와 활용효과에서 1위로 나타났음
 - 마케팅지원분야는 기술혁신대전 지원이 인지도와 활용효과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방중소기업이 판로애로 해결방안으로 동 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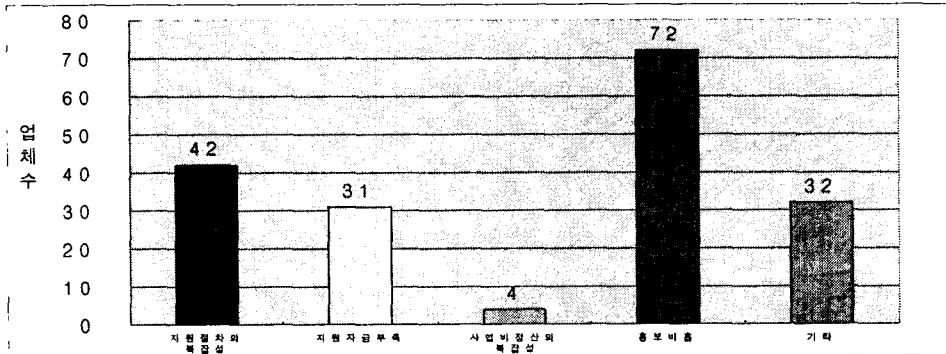
<표 - 5> 사업화·마케팅 지원분야 평가

사업명	인지정도		활용효과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사업화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18.2	1	18.2
	신기술아이디어평가	3	8.3	3	11.0
	이노비즈 기업인증	2	13.2	2	9.4
마케팅지원	해외유명규격획득	2	12.7	2	13.8
	기술혁신대전	1	25.4	1	14.3

1-1.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사유

- 우리청 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홍보미흡이 72개(3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체계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지원(신청)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하는 업체도 23.2%인 42개가 응답하여 추진절차의 단순화 검토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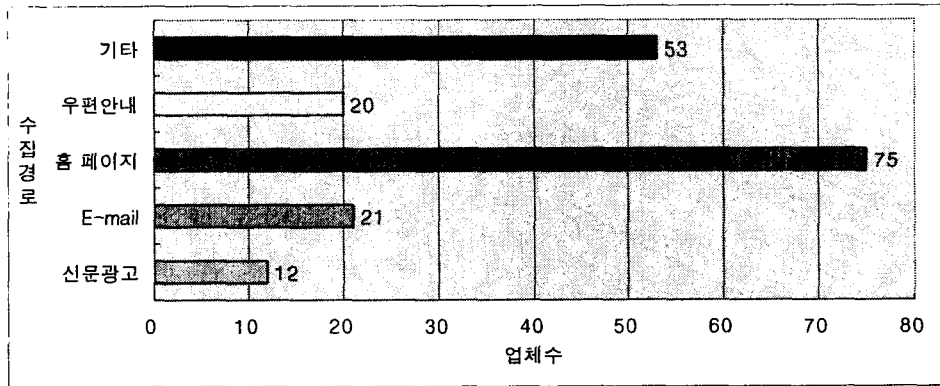
<그림-2>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사유



1-2.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수집 경로

- 지원제도에 대한 지방중소기업의 정보수집경로는 <그림-3>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3> 정보수집 경로



-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업체수가 가장 높고, 다음은 기타, E-mail, 우편안내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 강원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E-mail 갖기 사업이 홍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1-3. 지원효과가 낮았을 경우 그 이유

- 지원효과가 낮게 나타났다고 응답한 업체중 사유를 묻는 질문에 개발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아 지방중소기업은 자금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한편, 업체의 개별사정에 의하여 개발이 중단되거나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 응답의 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개발여건 평가를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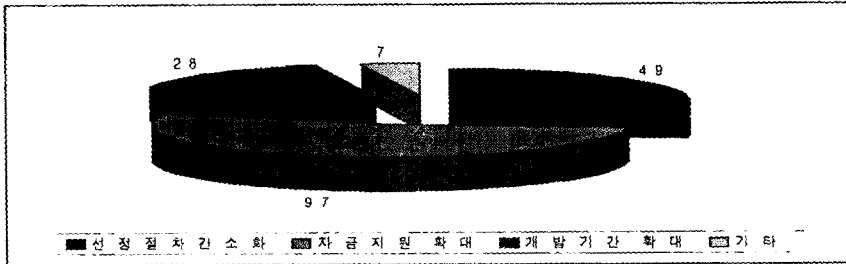
<표-6> 지원효과가 낮은 경우 원인현황

응답 업체수	지원(개발)기간 부족	충분치 못한 지원자금	업체사정
181	33	90	58

1-4.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제도 개선사항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지원제도의 개선사항은 자금지원확대가 응답업체의 53.6%차지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기술개발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어 신청절차의 간소화가 전체응답업체의 27.1%를 차지해 이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그림-4> 기술지원제도 개선사항



6. 결론

강원도내 중소기업은 전국대비 2.2%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지원제도를 기업에 서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특히 제조업)에서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청의 많은 지원제도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 홍보강화 및 기업의 CEO는 물론 중견 인력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다.